

소영철 시의원 발의, 소상공인 인력난 해소 위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특별시의회 소영철 의원(국민의힘, 마포구 제2선거구)가 발의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5년 12월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심각한 구인난에 직면한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동시에, 디지털·SNS 활용이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연결 통로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 소비 침체, 고금리,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규모 식당 등 영세 자영업자들은 인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온라인 채용 플랫폼 중심의 구인 구조 속에서,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구직자와 인력난을 겪는 소상공인이 서로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조례에 ‘소상공인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한 구인 활동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서울시가 소상공인 대상 구인 지원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의 인력난 완화는 물론, 온라인 채용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중·장년층, 취약계층의 취업 기회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

소영철 의원은 “지역상권의 주축을 이루는 영세·1인 자영업자들은 인력난

으로 생존을 걱정하고 있고, 한편에서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취업 취약계층이 존재하는 모순적인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구인 지원을, 취약계층에게는 접근 가능한 일자리 연결 통로를 제공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한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장성 기자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장, 신년인사회 희망을 쫓는 정치

가 아니라 희망을 키우는 정치 통해 시의 자긍심 높일 것



구리시는 병오년 새해를 맞이해 구리 시민들에게 지난 한 해 동안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새해맞이 친교와 화합의 장을 만들기 위해 2026년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구리시체육관에서 관내 기관단체, 봉사단체 등 시민들을 비롯하여 500여 명이 참석해 신년사 및 덕담과 만세삼창, 건배 제의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상호간에 새해의 의지를 다지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장은 지난 한 해 동안 나라 안팎으로 많은 고난이 있었음에도 구리시의 일상을 지켜내기 위해 헌신하신 공직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공백을 꼼꼼하게 메워준 기관단체와 봉사단체 등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아울러, “새해의 새로운 변화와 도약은 책상 위가 아닌 현장으로부터 시작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키우는 도시 ▲출퇴근 시민의 교통이 편리한 도시 ▲장애인과의 나눔을 실천하는 따뜻한 도시 ▲문화와 예술이 살아숨쉬는 도시 ▲생활체육으로 시민 모두가 건강한 도시를 만드는 데 온 힘을 집중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신 의장은 “새해에는 희망을 쫓는 정치가 아니라 희망을 키우는 정치를 통해 구리시에 사는 것을 자랑스러워 생각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의원 모두가 여야를 초월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마지막으로 “바쁘게 살다 보면 중요한 일보다는 급한 일부터 하는 경향이 많은데 돌아켜보면 급한 일을 가급적 만들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구리시의회가 급한 일만들지 않고 시민들의 중요한 일을 찾아서 해내는 의회로 기억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이채명 도의원, 프로축구 시민구단은 공공재 지원



시민구단은 단순한 스포츠 팀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를 지탱하는 공공재”라며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 제387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언급하며 “경기도는 2025년 기준 전국 최다인 7개 시민구단을 보유한 ‘한국 축구의 심장’이나, 정작 현장은 ‘풍요 속의 빈곤’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FC안양의 K리그 1 안착과, 화성FC의 프로 진입 등 외연은 확장됐지만, 성남FC의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등 재정 양극화와 불안정성은 심화되고 있다”며, “예산 부족이 경기력 저하와 관중 감소, 지역경제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도 차원의 과감한 마중물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채명 의원은 구체적인 대안으로 ▲3~5년 단위의 중기 재정 지원 계획 수립 ▲성과 연계형 인센티브 도입 ▲노후 경기장 인프라 개선 지원 등을 제안하며, “시민구단에 대한 투자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민 통합을 위한 효율적인 복지 정책인 만큼, 기획재정위원회를 거쳐 관련 조례 정비와 예산 확보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송민수 기자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 승기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착공 축하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국·연수구1)은 6일 인천 연수구 동춘동에서 열린 ‘승기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착공식’에 참석해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는 정해권 의장을 비롯해 주요 내빈과 시민들이 함께한 가운데 경과보고, 기념사 및 축사, 착공 세리머니 순으로 진행됐다.

‘승기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은 노후화된 기존 시설을 전면 지하화하고, 상부 공간을 주민 친화적인 공원과 녹지로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이를 통해 고질적인 악취 민원을 해결하고 도시 경관을 개선해 지역의 가치를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정해권 의장은 축사를 통해 “오랫동안 노후시설로 인한 악취 등으로 큰 불편을 겪어온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무겁게 경청해 왔다”며 “이번 현대화사

업은 시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사업 추진 과정을 면밀히 살펴 차질 없는 완공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인천시의회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미래 세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하린 기자

안장현 의원, “아산 읍내동산성 133억 국가 정비사업 환영”



안 장 현 총 남 도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국가 유산청 주관 ‘광역 단위 역사문화권 정비사업’ 공모에서 아산

읍내동산성 권역이 최종 선정돼 총 133억 원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안 의원은 “읍내동산성은 백제 웅진기 이후 아산 일대를 관할하던 군사·행정 거점으로, 충남 서북부 방어 체계를 이해하는 핵심 유산”이라며 “이번 국가 정비사업은 백제 역사문화권을 왕도 중심에서 지역 거점으로 확장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공주·부여에 집중됐던 백제 역사 정비 흐름이 전방 거점과 지역 거점으로 넓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아산이 국가 사업 대상에 포함된 의미는 크다”며 “권역 단위로 역사적 위상을 복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와는 별도로, 아산 배방산성의 역사적 가치가 최근 조사 성과를 통해 보다 분명해졌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4년 진행된 시굴·발굴조사를 통해 배방산성 남문지의 구조와 사용 양상이 확인되었고, 통일신라 이후 장기간에 걸쳐 지역 거점으로 기능했음을 보여주는 성과가 나왔다”며 “특히 통일신라 탕정주와의 연관성을 시사하는 자료가 확인되면서, 배방산성이 단순한 산성이 아니라 행정·군사적 성격을 지닌 거점성이었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아직 확인되지 않은 구간과 성벽 전반에 대한 추가 검토 필요성도 함께 제기된 만큼, 배방산성은 후속 발굴과 심층 연구가 반드시 이어져야 할 유적”이라며 “조속 시점과 성과의 성격을 보다 정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또 “배방산성은 기존에 충남에 알려진 여러 산성과 비교해도 역사적 가치가 분명한 유산”이라며 “읍내동산성 국가 정비사업을 계기로, 아산 지역 산성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정책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해미읍성과 면천읍성 사례를 언급하며 “충분한 조사와 정비를 거친 읍성과 산성이 역사 체험과 여가, 관광이 결합된 공간으로 발전한 경험은 배방산성의 향후 활용 방향을 검토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현진 기자

이영봉 의원,호원권역·신곡권역 학생 통학 교통 불편 해소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경기북부지역의원협의회장인 이영봉(더불어민주당·의정부2) 도의원은 지난 5일 경기도의회 상담소에서 의정부시 버스정책과 관계자와 정담회를 갖고, 호원권역·신곡권역 학생들의 등·하교 교통 불편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지난 1월 2일(금) 박지혜 국회의원과 경민고등학교 학생회장·부회장, 담당 교사 등이 함께 현장을 방문해, 통학 과정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개선 필요성을 확인한 데 따른 후속 협의 차원에서 이뤄졌다.

정담회에서는 호원권역·신곡권역 학생들이 경민중·고등학교를 비롯한 인근 다수 학교로 통학하는 과정에서, 등·하

교 시간대 대중교통 이용이 원활하지 않아 이동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를 중심으로 현황을 공유하고, 학생 이동 여건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현재 운영 중인 교통체계를 바탕으로 다양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마을버스를 포함한 여러 대안을 함께 살펴보고 개선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영봉 도의원은 “학생들의 통학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학생 안전과 이동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관계 부서와 협의를 이어가며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민수 기자

